광주·전남출신 총선 수도권 후보들 출사표

〈※민=민주통합당, 새=새누리당, 선=자유선진당〉

“시도민 긍지 갖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

김효석(민·서울 강서 을/장성 출신)

지난해 7월 수도권 출마 선언 이후 공천을 받기까지 가장 큰 힘은 지역민의 성원이었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자양분 삼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행운이었음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절실히 느꼈다.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교체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것이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도민의 긍지를 갖고 고향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

“부동산·조세정책 전문가…조세개혁 앞장”

이정국(민·안양 동안 을/신안)

신안 우이도가 고향이다. 인근 하의도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한화갑 전 대표의 고향도 인근 섬이다. 유년시절 이들의 이야기를 위인전처럼 들으면서 꿈을 키워왔다.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다. 부동산과 조세정책분야 전문가로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조세개혁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겠다.

“주민들이 소망하는 변화·개혁 이룰 것”

김정훈(새·서울 금천/광주)

18대에 이어 19대 총선에 재출마했다. 성공한 정치가는 리더십이 있고 소통도 잘하지만, 그 성공의 핵심에는 훌륭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군 생활(준장 예편)과 대학교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소망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룰 것이다.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실현하겠다.

“주민과 적극 소통…서민의 삶 보듬어 가겠다”

문병호(민·인천 부평 갑/영암)

4·11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지역구를 생태·평등·복지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뜨겁게’ 지역 주민과 소통하겠다. 주요 공약은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단체지원 특별법 추진·부평상권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주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인데, 이를 바탕으로 서민의 삶을 보듬어 가겠다.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 위해 총력전”

전해철(민·경기 안산 상록 갑/목포)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승리를 일궈내겠다. 총선 승리를 계기로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밀알 역할을 하겠다.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목포시민과 전남도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호계역 신설·교도소 이전문제 적극 해결”

심재철(새·경기 안양 동안 을/광주)

맑고 바른 정치의 표본으로 인정받은 ‘심재철식 정치’를 한국 정치에 희망을 심는 복토로 접목시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안양은 인근 시와의 통합, 호계역 신설 등 전철 사업의 순항, 교도소 이전문제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초선 같은 중진, 초심을 지키는 중진으로 모범이 되겠다. 중앙정치의 정치 거목이 되어 안양 발전의 견인차로서 주민께 보답하겠다.

“호남 출신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지평 열 것”

박홍근(민·서울 중랑 을/고흥)

중랑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역으로써 다양한 출신지역의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중랑에서의 승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의에 맞서 싸워온 호남의 역사가 나를 키워왔다고 자부한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출신임이 부끄럽지 않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가겠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가겠다”

조순용(민·서울 용산/순천)

소통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서민·중산층이 함께 가장 잘 사는 용산구를 만들겠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정치 실현의 첫걸음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 성원에 보답하겠다. 나의 단점을 늘 장점으로 바꿔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당당하게 사는 법을 깨우치게 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당당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현안 잘 챙겨 서민이 행복한 1등 구 만들 것”

정두언(새·서울 서대문 을/광주)

그간 새누리당 쇄신파 리더로서 ‘서민의 대변자’역할을 해왔다. 1년여 투쟁 끝에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추가감세를 철회시켜서 서민복지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여당에서 처음으로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를 제기하여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마무리가 덜 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서대문 을을 주민행복지수 1등 구로 만들어 가겠다.

“99% 현장정치로 서민이 희망갖는 정치 욕심”

송두영(민·경기 고양 덕양 을/광주)

지난 MB정권 4년은 반칙이 판치는 시대였다. 각종 부정·비리에 민생은 파탄났고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진정성이 담긴 실천과 99%를 위한 현장정치로 신명나는 생활정치, 서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 빛고을 광주가 길러준 저에게 불의에 목숨을 내걸었던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 5·18 정신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재벌개혁·통신료 50% 인하 중점 추진”

차영(민·서울 양천 갑/완도)

4·11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재벌개혁과 통신료 50% 인하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주민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이 생길거에요’가 저의 슬로건인데, 이처럼 지역구와 고향, 그리고 대한민국에 좋은 일,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고도제한 완화·교육환경 개선 강북발전 최선”

정양석(새·서울 강북 갑/보성)

지난 4년간 자전거를 타며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왔다. 15회에 걸친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발전 예산 149억원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와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중앙 정치에서도 활약을 했다. 하지만, 그간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다. 지역구의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교육환경 개선 등 강북의 발전을 위해 더 뛰겠다.

“빈부·세대 극복 희망의 새정치 펴겠다”

신계륜(민·서울 성북 을/함평)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빈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희망의 새 정치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걸어가겠다.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그립고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른 후보들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심정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

“MB정권 탐욕·부패·거짓 심판할 것”

천정배(민·서울 송파 을/신안)

이명박 정권 4년,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변해버렸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상식과 양심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나라 곳간을 ‘도둑질’하느라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르는 세월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부패, 거짓과 폭력을 심판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신안 암태도 출신의 천정배, 늘 그랬던 것처럼 천정배답게 정치하겠다.

“정치불신 팽배…현역교체 국민여론 높아 ”

최홍재(새·서울 은평 갑/나주)

이번 총선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의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선거다. 여론 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저는 이 의미를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라는 국민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이에 걸맞는 정치인을 잘 선택해 주길 바란다.

“차별없는 사회·노동자 권익찾는 정치 주력”

이용선(민·서울 양천 을/순천)

무등산의 넉넉함과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키워가는 정치를 하겠다. 노동 운동, 시민 운동, 남북 화해 운동의 경험을 살려 차별과 소외가 없는 사회,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치, 남북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겠다. 교육·안보·외교·경제 정책 전반에서 실정과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다.

“법과 제도 통해 호남정신 꽃 피우겠다”

최재천(민·서울 성동 갑/해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하겠다. 호남의 개혁성과 진보성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우리 고향 분들의 열정이 정치적 원동력이다. 지역민들의 염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4·11 총선에 임하겠다. 그리고 꼭 승리하겠다. 호남의 정신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향 선·후배 응원 … 항상 서민과 함께 하겠다”

김홍준(선·서울 광진 을/보성)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항상 그립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SNS 등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향 선·후배들이 응원을 많이 해준다. 잊지 않겠다.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재래시장을 찾던 후보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 항상 서민과 함께하고 숨 쉬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제2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419,848,182	I. 유동부채	2,270,006,945
(1)당좌자산	398,136,258	1.매입채무	32,124,562
1.현금및현금성자산	19,051,522	2.단기차입금	900,000,000
2.매출채권	325,919,129	3.미지급금	802,468,845
(대손충당금)	(1,992,644)	4.선수금	500,000,000
3.미수금	10,589,270	5.예수금	5,590,778
4.선급금	5,000,000	6.미지급비용	12,249,203
5.선급비용	34,671,497	7.예수부가가치세	17,573,557
6.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4,897,484	II. 비유동부채	4,166,301,150
(2)재고자산	21,711,924	1.장기차입금	3,963,740,000
1.제품	2,353,198	2.퇴직급여충당부채	203,210,050
(평가충당금)	(1,330,014)	(국민연금전환금)	(648,900)
2.저장품	20,688,740	부채총계	6,436,308,095
II. 비유동자산	8,811,488,117		
(1)유형자산	8,367,455,132		
1.토지	1,725,537,050	자본	
2.건물	2,125,975,309		
(감가상각누계액)	(145,373,057)	I. 자본금	200,000,000
3.구축물	111,540,585	1.보통주자본금	2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56,501)	II. 자본잉여금	4,232,607,645
4.기계장치	4,538,831,857	1.주식발행초과금	4,232,607,645
(감가상각누계액)	(446,980,905)	III. 결손금	1,637,579,441
5.차량운반구	348,658,045	1.미처리결손금	1,637,579,441
(감가상각누계액)	(89,199,144)	자본총계	2,795,028,204
6.공구기구비품	105,456,183		
(감가상각누계액)	(30,934,290)		
7.건설중인자산	129,000,000		
(2)기타비유동자산	444,032,985		
1.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444,032,985		
자산총계	9,231,336,299	부채와자본총계	9,231,336,299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3월 29일

주식회사 전주에너지

대표이사 장 만 천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2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재 술

사업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 60%)	용적율	478.73%(법정 : 480%)
규모	지하 0층 지상 9층	최고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켈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개요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휘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